



연말이면 언제나 찾아오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 안숙선 등 명인들이 총출동하는 국악공연.
광주시립창극단을 비롯해 국악관현악단, 발레단 등 광주시립예술단이 풍성한 송년무대를 마련했다.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유영애)은 1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송년 국악한마당 '일세지웅(一世之雄)'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안숙선·신영희·김수연 등 국악계 명인들이 대거 출연한다.
공연의 첫 무대는 남도민으로 문을 연다. '육자배기'를 국가무형문화재인 신영희, 김수연, 유영애, 안숙선의 소리로 듣는다. 이어 창극단 창작부 단원들이 '새타령', '액맥이타령' 등을 선보인다.
다음으로 명인 강정숙이 '서공철류 가야금산조' (장단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은 19~20일(오후 7시30분), 21일(오후 4시·오후 7시30분) '호두까기 인형'으로 춤의 향연을 펼친다.
호프만의 동화와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마리우스 프티빠의 안무가 어우러진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 '호두까기 인형'은 시립발레단이 23번째 무대에 올리는 작품으로 1997년 초연 후 누적 관객 5만명을 기록했다.
공연은 주인공 클라라가 직접 읽어주는 동화 이야기에 맞춰 진행되며 클라라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호두까기 인형과 마법 여행을 떠나면서 시작한다.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 인형과 클라라는 인형 나라에서 러시아, 스페인, 중국, 아라비아 인형의 춤 등 세계 각국 인형들의 춤을 보며 즐거워한다. 피날레 부분의 2인무인 클라라와 왕

공연 보따리가 펼쳐집니다

국악·캐롤송·발레·오페라 등
광주시립예술단, 풍성한 무대
국악관현악단, 17일 양수경 출연
창극단, 18일 명인들과 '일세지웅'
발레단, 19~21일 '호두까기 인형'
시향, 26일 아리아 연주



안숙선 서선영 양수경

신기식)를 들려주며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는 대목'과 '심청가' 중 '황성올라가는 대목'이 관객과 만난다. '교방무', 단막극 '어사봉막', '가야금 병창' 무대도 마련된다.
경기민요의 대가들도 무대에 오른다. '노래가락', '태평가', '장부타령', '자진넷노래' 등을 명창 이호연, 소리꾼 이기욱, 김보연 등이 준비했다. 명무 진유림은 제자들과 함께 전통춤인 '임춘소고'를 선보이며 '허튼법고춤'으로 단독무대를 선보인다.
공연의 대미는 '판굿과 배나놀이', '사자춤', '버꾸춤', '진도북춤'으로 장식한다. 전석 1만원.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자 한상일)은 '가수 양수경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국악한마당'을 준비했다. 1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이번 연주회에서는 가수 양수경이 히트곡인 '사랑은 창밖의 빔불같아요', '갈무리', '당신은 어디있나요' 등을 선보인다. 또 서영호 명인이 거문고와 기타의 만남으로 탄생한 칠현금 연주를 준비했다. '가야금병창을 위한 협주곡' 무대에는 명인 이영애가 협연자로 등장해 '박꽃핀 내고향', '남그린 회포', '풍년경사' 등을 선사한다. 마지막 무대는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맞아 캐롤송으로 장식한다. '루돌프사슴코', '울면 안돼', '겨울 바람' 등의 캐롤을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해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 선보인다. 전석 1만원.

자의 결혼식 장면은 화려한 기술로 '호두까기 인형'의 백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80여명의 무용수들이 등장하는 이번 무대에는 보그단·임예선, 송관석·조희원, 이기행·강은혜, 우건희·공유민 등 4쌍의 주역들이 각자 다른 매력으로 무대를 꾸민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광주시립교향악단은 26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오페라 아리아 등으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은 1부와 2부로 나뉜다. 1부는 드보르작의 '카니발 서곡'으로 문을 연다. 이어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중 '아침의 기분', '아니트리아의 춤', '솔베이지의 노래' 등을 연주한다.
2부에서는 베르디의 오페라 '가면무도회' 하이라이트 곡과 보로딘의 '이고르 왕자' 중 '폴로베츠 처녀들의 춤'을 들려준다.
지휘는 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김홍재가 맡았으며 협연자로 소프라노 서선영과 테너 이범주가 무대에 오른다. 서선영은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비냐스 국제성악콩쿠르 등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범주는 베르디 국제콩쿠르 2위, 마리아 까발리아 국제콩쿠르 1위 등을 수상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최태지)이 오는 19일~2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 모습. <광주문화예술회관 제공>

남도조각 흐름 한눈에

국윤미술관·남도조각가협 공동 20일까지 기획초대전

'남도 조각의 흐름을 만나다.'
지난 1978년 창립된 '남도조각가 협회'는 지역 조각사(史)의 산증인이다. 창립 이듬해인 1979년 전일미술관에서 제1회 전시를 열며 활동을 시작한 남도조각가협회는 41년 동안 해마다 정기전을 통해 조각의 다채로운 소재와 기법들을 공유하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왔다.
무등산 자락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이 남도조각가협회(회장 조은경)와 공동 주관으로 1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기획초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는 남도지역 조각계를 대표하는 70대 원로작가부터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중견작가, 청년작가들이 모두 참여 개성 넘치는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여러 세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 남도 조각의 변천사와 시간의 흐름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전통조각의 개념을 넘어 표현방식과 표현재료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도 즐거움을 전해 준다.



조은경 작 'L'AMOUR'

이번 전시에는 고근호·김대길·김왕현·김용우·문옥자·박광구·손연자·이기원·장용훈·전범수·정운태·정준표·조유나·주미희·최미애·최재덕·하영생·황경숙 등 37명의 작가가 청동, 대리석, 나무, 흙 등 다양한 소재로 작업한 인물상 등 추상과 구상 작품을 선보인다.
오픈 행사 11일 오후 6시.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무한 반복 '12개의 달'

'김진화 초대전-12' 전, 23일까지 은암미술관

1년 열두달 이야기를 낮과 밤 24점의 연작으로 표현한 작품을 만난다. 회화 작품과 함께 입체, LED가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들이기도 하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오는 23일까지 '김진화 초대전-12' 전을 개최한다. 전시 주제 '12'은 '12의 n승'으로, 12개의 달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우주의 원리를 담고 있다. 3년간 이 주제로 작업해온 김 작가는 열두 달의 '낮'은 평면회화로, 열두 달의 '밤'은 회화와 입체, LED를 접목시켜 표현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몽환적이다. 별, 달, 새, 하늘, 나무 등 대자연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작가는 자신의 내면적 상상력을 동원해 실재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다. 특히 연작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12월(매듭달)-항해자'는 1월부터 11월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모두 한 화면에 담아내 인상적이다.
이번 LED 신작에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서양의 창문 대신 동양의 전통적 창문을 자작나무로 제작해 별자리 등 서양적인 요소들과 병치시켜 신비로운 분위기를 배가시켰다. 전시장 레이아웃도 흥미롭다.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창문과 인물모형을 배치해 '회화적 설치'를 하거나, 박스 형태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종이를 이용한 몇 개의 레이어를 중첩해 연극무대처럼 구성하기도 했다.
김 작가는 "이번 작업을 하며 무수한 별들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에서 우리 자신도 태



'12월(매듭달)-항해자'

어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우주만물은 생성되고 소멸되며 또 순환한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달았다"고 말한다.
김 작가는 광주, 뉴욕, 서울 등에서 모두 16차례 전시회를 가졌으며 광주신세계미술상 대상, 하정웅정년작가상, 광주미술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푸션 엑스퍼트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